

#### 4.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유약기) 성장(1945-60)

조동호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해방직후 두 개(돈암동교회와 필운동교회)뿐이었던<sup>1)</sup> 기독교회선교부의 교회 숫자가 1950년 6.25동란직전까지 42개가 되었다. 1949년에 22개, 1950년 전반기에 13개, 총 35개 교회가 추가되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최춘선 목사가 부여(Poo Yaw)에 세운 교회였다. 최춘선은 1950년 6월 부여에서 23명에게 침례를 베풀었다.<sup>2)</sup> 그리고 존 T. 채이스와 존(요한) J. 힐이 동반 사임한 1955년 말에는 75개의 교회로 불어나 있었고,<sup>3)</sup>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이 같은 열매는 여러 내국인 사역자들과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였다.

##### 1) 수도권 지역의 교회 성장

서울지역에서의 교회성장은 최상현과 성낙소 및 채이스와 힐의 헌신 때문이었다. 해방 직후 '기독교회 조선선교회'(요즈야선교회) 소속이었던 이난기 목사(용산교회, 협성신학교 졸업)와 윤낙영 목사(아현동교회, 경성성서학원 졸업)가 최상현과 성낙소의 노력으로 기독교회선교부의 교회들에 합류하였고, 백낙중

---

1) <한국종교사>(김득중)에서는 1943년에 6개(교역자 6명, 교인 909명)로 보고되었다. 이들 교회들이 요즈야선교부의 교회들이었는지 혹은 기독교회선교부의 교회들이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2) John J. Hill, "John Hill, Missionary, Begins Work with Koreans and Japanese in Japan," *Christian Standard*, 16 September 1950, p. 581; "Hill Family Moves to Tokyo; May Return to States," *Christian Standard*, 9 September 1950, p. 564; "Korean Christian Mission: Past, Present, Future," *Christian Standard*, 19 May 1951, p. 309.

3) "Preachers and Problems," *For Christ in Korea*, June 1956, p. 5; Harold Taylor, "History of the Korean Christian Mission," *For Christ in Korea*, October 1959, pp. 3-4.



목사가 자신이 운영하던 공민학교에 공덕교회를 세웠다. 또 백낙중은 힐이 운영한 신학교에서 힐, 성낙소, 최상현과 더불어 교수로 섬기던 1949-50년 사이

에 왕십리교회를 세워 시무하였다. 이밖에도 성낙소 목사의 아들 성수경(한의사, 단국대, 경희대 및 서울성서신학교 졸업) 목사가 위동교회를 개척하여 부자가 필운동교회와 위동교회를 번갈아가며 섬겼다. 이밖에도 1950년대에 애국지사 최춘선 목사가 개척한 김포교회가 있었고, 우이동, 미아리, 도원동에도 개척된 교회들이 있었으며, 신갈에는 이기구 목사(안식일교회로 이적)가 개척한 교회가 있었다. 인천에는 이종만 목사가 세운 보육원에 숭의교회가 있었고, 부평에는 기독교회선교부가 운영한 보육원에 교회(설하운 목사)가 있었다.<sup>4)</sup>

## 2) 충청과 전라지역의 교회 성장

충청이남지역에서의 교회성장은 부강교회의 김은석 목사와 목포교회의 최요한 목사의 헌신 때문이었다. <한국인 전령>(The Korean Messenger)에 따르면, 전쟁 중 또는 해방직후에 2개(돈암동교회와 내수동교회)뿐이었던 교회가 1949년에는 19개가 되었고,<sup>5)</sup>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에 의하면, 1950

4) John J. Hill, "A Short History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Korea," <세메론 제7호>(한국성서신학교, 1972).

5) "Korean Messenger Supplement," *The Korean Messenger*, July 1949, p. 3.

년 말에 42개가 되었다.<sup>6)</sup> 또 <기독교 연감(1957)>에 의하면, 1956년에 충청이남지역에만 총 36개의 교회가 있었다(충북 13, 충남 6, 전남 17).<sup>7)</sup> 이로부터 7-8년 뒤, 곧 김은석 목사가 1963년에 소천하고, 힐 요한 선교사가 대전시 가장동에 신학교 교사를 건축하던 1964년에는 충청이남지역에만 총 60개의 교회가 있었다(충북 16, 충남 19, 전북 1, 전남 24).<sup>8)</sup>

1955년 11월에 채이스와 힐을 대신해서 한국에 입국한 해롤드 테일러(Harold Taylor) 선교사는 전수조사 후 1955년 말의 교회숫자를 총 75개로 보고하였고,<sup>9)</sup> <한국에 그리스도를!>(For Christ in Korea) 1958년 2월호에서는 김은석 목사를 “남한에 약 25개 교회를 세운 복음의 옹호자”(Gospel father)라고 보고하였다.<sup>10)</sup> 힐 선교사도 그 공로를 김은석에게 돌렸다. 장로교회 목사였던 김은석이 박점상과 함께 1946년에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하자, 이듬해 1947-48년 기간에 최상현, 성낙소, 김포 항공기지에 근무한 미 공군 군목 할 마틴(Hal Martin)이 부장을 왕래하며 김은석 목사를 도왔다.

최요한(용환) 목사는 1946년 2월 영흥장로교회 부흥집회 때 김은석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1946년 4월 전남 함평군 손불면 신흥리(궁산리)에 그리스도의 교회, 동년 10월 전남 함평군 손불면 주포리(석성리 청학동으로 이전)에 그리스도의 교회, 이듬해인 1947년 1월초 전남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에 그리스도의 교회, 1947년 7월에 전남 영광군에 무영 그리스도의 교회, 1948년 3월초 광주 사동에 그리스도의 교회, 1950년 전북 고창에 그리스도의 교회, 1952년 1월초 전남 목포에 그리스도의

6)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 (1956-2006)>(2006), p. 291.

7)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 p. 324.

8) ‘김은석 목사와 충청 이남의 자생적 그리스도의 교회,’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 pp. 324-5쪽.

9) “Preachers and Problems,” *For Christ in Korea*, June 1956, p. 5.

10) “One Way,” *For Christ in Korea*, February 1958, p. 4.



광)교회, 강릉교회, 평산교회가 추가로 개척되었다.<sup>15)</sup>

영남지방에도 1950년대 여러 교회들이 있었다. 오현팔 목사가 1945년에 개척한 영양교회가 있었고, 장성만 목사가 1953년 1월 3일 개척한 대교교회가 있었으며, 1956년에는 울산교회가 ‘한국에 예배당을’ 기금에서 1,400달러를 후원받아 장로교회로부터 헌 예배당을 매입하여 사용하였다. 1956년 3월 31일에는 대구교회가 ‘한국에 예배당을’ 기금을 지원받아 예배당을 짓고 입당예배를 드렸다. 경북 김천에도 교회가 있었고, 제주도에도 2개 교회가 있었다.<sup>16)</sup>

#### 4) 1950년대 후반기 교회들과 신학교의 정황

해롤드 테일러는 1955년 11월 기독교회선교부의 책임선교사로 부임하여 추락된 선교부의 지도력 복원과 분열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테일러는 1956년 2월에 전국 75개 그리스도의 교회들에 설문지를 보내서 교회들의 역사, 재적인원, 출석과 건물 현황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답장을 보내온 교회들 가운데 침례 교인이 1,379명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10명 미만인 교회가 9개, 20명 미만인 교회가 22개, 50명 이상인 교회가 4개였다. 출석교인들은 이보다 10배 정도 많았다. 이들 가운데 몇몇 교회들만이 적절한 크기의 건물을 갖고 있었고,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일정부분 도움을 필요로 하였다.<sup>17)</sup>

테일러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처음 6개월 동안 보고 느낀 소감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시골에 있었고, 가난하고

14) Flashes from the Lashes, 24 April 1958.

15) Flashes from the Lashes, 25 November 1959; 11 February 1964; 조동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2014), pp. 494-500.

16) "Our First Chapel," *For Christ in Korea*, June 1956, p. 1; "Training Preachers," *For Christ in Korea*, February 1957, p. 3; "To the Uttermost Parts," *For Christ in Korea*, June 1957, p. 3.

17) "The Chapels Program," *For Christ in Korea*, June 1957, p. 2.

작은 교회들이었으나 교인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것에 열심을 내는 훌륭한 성도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담임목사의 생활을 책임질 만큼 넉넉하지 못했고, 일부 교회들은 일주일 내내 체류하는 목회자를 두지 못하였다. 테일러는 1955년까지 전국에 75개의 교회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5개 정도만 도시에 있었고, 나머지는 모두 시골이나 도시들의 공유지를 점유한 판자촌 또는 피난민촌에 있었다고 전하였다.<sup>18)</sup> 그리고 1958년 초에 테일러는 ‘한국에 예배당을’ 기금을 후원받은 교회들이 대부분 텐트나 초라한 건물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초가지붕이거나 마루도 없는 교회들이었다고 전하였다.<sup>19)</sup>

테일러 선교사가 1957년 전반기까지 도움을 준 교회는 39개였다. 아직 돕지 못한 교회들까지 다 후원하려면 5천 달러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이 시점까지 테일러가 받은 기금은 총 28,857달러 83센트였다. 이 가운데 존 T. 채이스로부터 넘겨 받은 돈은 18,424달러 88센트였다. 그리고 39개의 교회들을 건축하거나 수리 또는 보수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26,776달러 51센트였고, 송금료 22달 41센트, 환전료 10달러 11센트, 기타(순회 및 국내 송금료) 119달러 12센트였으며, 잔액은 1,929달러 79센트였다.<sup>20)</sup> 그로부터 1년 후인 1958년 초에 테일러는 여전히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는 최소한 1만 달러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하면서, 이 1만 달러가 추가되면 총 5만 달러를 쓰게 되는 것이지만, 이 5만 달러는 미국에서 예배당 하나 짓는 비용에 불과하고, 한국의 교파교단들의 큰 교회 예배당 두 개 정도를 짓는 비용에 불과하다고 적었다.<sup>21)</sup> 그로부터 다시 1년 반쯤 지난 1959년 10월경까지

---

18) "Preachers and Problems," *For Christ in Korea*, June 1956, p. 5.

19) "The Chapels Program," *For Christ in Korea*, February 1958, p. 2.

20) "The Chapels Program," *For Christ in Korea*, June 1957, p. 2.

21) "The Chapels Program," *For Christ in Korea*, February 1958,

‘한국에 예배당을’ 기금은 총 11개의 새 예배당 건축, 1개의 장로교회 예배당 매입, 34개 교회들의 신축 또는 수리를 위한 보조금으로 지급되었다.<sup>22)</sup>

테일러 선교사는 부임한 이듬해인 1956년 초부터 전국의 교회들을 순차적으로 순방하였다.<sup>23)</sup> 요츠야선교부와 기독교회선교부를 통틀어 한국에 체류했거나 시찰했던 선교사들 가운데 남한 전역을 순회한 선교사는 테일러가 처음이었다. 테일러는 기독교회선교부의 책임선교사로 부임한 이듬해인 1956년 1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이신 목사와 함께 전라남도 지역의 교회들을 순회하였다. 이 무렵 전남에는 김은석과 최요한의 영향력아래 19개<sup>24)</sup>의 교회들이 있었는데, 김은석의 100일 저녁 집회가 끝나는 마지막 날 함평군 함평면 석성리 신생마을 교회를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영광교회, 115명의 아이들이 수용된 보육원, 최요한 목사가 시무하던 유달교회(순복음), 대전시 판암동의 애생원 등 다섯 곳을 방문하였다. 동년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테일러는 최순국(통역)과 함께 새 예배당을 짓고 부흥회 마지막 날 입당예배를 드린 대구교회 방문을 시작으로 김천교회, 김동렬 목사의 신탄진교회와 신화신학성경연구회가 열리고 있던 부강교회를 방문하여 5시간 동안 강의하였다.<sup>25)</sup>

테일러는 1957년 초 신학교가 겨울방학에 들어가는 기간을 이용하여 광주와 목포, 제주(2개 교회가 있었음), 부산, 대전으로 이어지는 제2차 남부순회전도여행을 계획하였고, 동년 3월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 최순국과 함께 부산을 시작으로 경상도와 강원도지역 교회들의 방문길에 나섰다. 부산에서 방송국 설립을 추진하고 있던 빌즈(Verlen Alex & Betty Bills) 선교

---

p. 2.

22) Harold Taylor, "History of the Korean Christian Mission," *op. cit.*

23) 조동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 pp. 221-27.

24) 1956년 연감에는 17개로 되어 있다.

25) "Our First Chapel," *For Christ in Korea*, June 1956, p. 1.

사 가족을 만났고, 기독교회선교부로부터 ‘한국에 예배당을’ 기금에서 1956년에 1,400달러를 후원받아 장로교회로부터 헌 예배당을 매입한 울산교회, 한의사였던 애국지사 오현팔 목사가 시무하던 영양교회, 삼척교회, 주문진교회를 방문하였으며, 38선 이북 고성까지 갔다.<sup>26)</sup> 동년 4월 29일에는 수도권 지역의 목회자, 장로 및 집사들의 연합집회를 개최하여 40여명이 모였고, 인천교회에서의 모임도 계획하였다. 또 테일러는 1957년 6월 3일에 충청도, 5일과 7일에 전남, 9일에 제주도에서 연합집회를 열 계획을 세웠다. 테일러는 이들 집회들을 통해서 전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절반 이상과 만나게 되기를 희망하였고, 7월말까지는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만남이 이뤄지기를 기대하였다. 이 목적을 위해서 테일러는 가능하다면 전국의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방문할 계획이었다.<sup>27)</sup>

테일러 선교사는 1958년에도 한길사 직원 방 아무개(통역) 씨와 동행하여 5월 18일 주일부터 부강교회, 송조순 형제가 운영하던 판암동 애생원, 전라남도 광주, 해남군 화산면 방축리교회, 강진, 영암군 학산면 상월리교회, 무안군 하의면 하테리 하의도교회(임해숙 전도사)를 방문하고 25일(주일) 오후에 귀경하였다.<sup>28)</sup> 테일러는 1959년 6월 8-10일에도 전라도지방을 순회하였다. 해롤드 테일러 선교사의 전국 순회 일정들을 볼 때, 교회들이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테일러의 후원계획은 개교회가 할 수 없는 부분만큼만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그는 그의 선임 선교사들이 목회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주던 후원금을 끊고 긴급 상황에서만 후원을 하였다. 테일러의 이 후원정책은 채이스가 ‘한국에 예배당을’ 기금을 조성할 때 세웠던 계획, 곧 꽤 훌륭한 예배당을 10여 채 이상 세우겠다는 계획에서 벗어난 것이었다. 게다가 그의 정책

26) "To the Uttermost Parts," *For Christ in Korea*, June 1957, p. 3.

27) "Report of Progress," *For Christ in Korea*, June 1957, pp. 1-2.

28) "Daily Doings from Our Diary-May," *For Christ in Korea*, August 1958, p. 2.



은 많은 내국인 사역자들이 그를 배척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일러는 각각의 교회가 예배당을 짓거나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자조자립을 원칙으로 하되 교회가 부담할 수 없는 부분만 보충해 주는 방식을 취하여 보다 많은 예배당을 건축하거나 보수하는 일에 채이스가 남긴 선교기금과 자신이 추가로 모금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테일러는 할 요한 선교사가 1959년에 재입국하여 대전에서 선교사역을 시작하기까지 1950년대 후반기 5년간 전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후 1960년대에는 테일러 선교사가 수도권에서, 할 선교사가 충청이남권에서 영향력을 나눠 행사하였다. 그러나 이들 선교사들은 신학교운영자요 내국인 사역자들의 후원자였을 뿐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성장을 실제로 주도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성장을 주도한 인물들은 수많은 내국인 사역자들이었다.

테일러는 자신이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두 개의 확연이 드러난 문제들이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첫 번째 문제는 70여개의 어린 교회들이 있었고, 그것들 대부분이 2-3명의 신실한 목회자들의 열정에 의해서 세워진 것들로서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목회자들이 돌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양떼를 제대로 돌볼 훈련된 목회자들이 필요하였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대개의 교회들이 시골이나 피난민 지역들에 있었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도시들에 교회들을 세워야 할 필요가 분명히 존재하였다는 것이다. 서울을 제외한 다른 10개의 대도시들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단지 6개뿐이었는데, 그 가운데 2개만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었고, 오직 한 개의 교회만이 한명의 장로를 두었다고 하였다. 시골에 있는 교회들조차도 단지 몇 개만이 상태가 좋은 교회였고, 그들 가운데 1958년 5월 22일에 방문했던 전남 해남군 화산면 방축리교회는 80여명의 성도에 2명의 장로가 있었으나 애석하게도 장로들이 목회자를 내보냄으로써 그 목회자가 인근지역의 타교단으로 갔다고 하였다. 테일러는 작은 교회들을 아우를 수 있는 만형교회들이 대도시에도 필요한데, 그러

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신학교, 정부로부터 인가가 난 신학교가 필요하다고 확신하였다.<sup>29)</sup>

이 확신을 가지고 테일러는 정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기 위해서 신학교 캠퍼스 이전 프로젝트(New Seminary Project)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다. 테일러의 입국 당시 서울성서신학교 학생들은 40여명이었고, 일본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이 서울에 까지 와서 가르쳐야했기 때문에 교과과정은 과목당 6주씩 집중 교육을 받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sup>30)</sup> 테일러는 1956년 문교부에 신청한 인가가 부지가 8분의 1밖에 되지 않아 거부되자, 신학생들이 늘어나 장소가 협소다면서 송월동 부지와 건물을 팔고 더 싸고 넓은 부지를 물색하여 선교부와 신학교를 이전시켜야할 필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어야 정부로부터 대학인가를 받을 수 있고, 인가를 받아야 좋은 학생들을 받을 수 있으며, 재학생들이 병역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혜택들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



1963년 서울성서신학교 개교식

앞줄 우측부터 김진문 목사, 박두진 시인, 정인소 박사, 최윤권 목사, 해롤드와 에이더 테일러 선교사 부부, 고든과 샤론 패튼 선교사 부부, 한 사람 건너 차원봉 목사

29) "Working with Him," *For Christ in Korea*, August 1958, p. 1.

30) Harold Taylor, "History of the Korean Christian Mission," *op.*

*cit.*

다.<sup>31)</sup> 결국 테일러는 송월동 선교부의 재산(토지 396평과 그 위에 세워진 선교부 건물과 신학교 3층 건물)을 1959년 6월 3일까지 모두 팔고,<sup>32)</sup> 7,087평의 역촌동 땅위에 새 캠퍼스를 마련하여<sup>33)</sup> 1963년에 서울성서신학교(현 서울기독교대학교)로 개교시켰다. 그 때문에 신학교 운영이 잠시 중단되었으나 힐 선교사 가족이 입국하여 1959년 12월부터 대전에서 신학교를 열어 목회자교육을 시작함으로써 그 공백기를 메울 수 있었다.

이밖에도 테일러는 내국인들의 이견을 좁히고, 자신이 주도하는 비교과교회 플랜 곧 신약성서기독교를 전국에 소개하며, 목회자들의 설교준비와 목회사역을 돕기 위해서 월간 <한길>(One Way)을 1957년 3월에 창간하였다.<sup>34)</sup> 또 전쟁고아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들 보육원을 직접운영(부평) 또는 후원(인천 송의동, 대전 판암동)하였으며, 세 개의 중학교 설립을 돕고 순회하였으며 후원하였다.<sup>35)</sup> 또 테일러는 리처드 래쉬(Richard and Melba Lash) 가족과 고든 패튼(Gorden and Sharon Patten, 배도은) 가족을 선교사로 영입하여 한국교회 발전에 크게 기여토록 하였다. 래쉬 가족은 1957년 6월 24일 부산에 도착하였고,<sup>36)</sup> 고든 패튼은 1954년에 미군으로 한국에서 근무하면서 한국의 물질 영적 궁핍을 깨닫고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하였으며, 미국으로 돌아가 신학공부

---

31) "Seminary Registration," *For Christ in Korea*, June 1956, p. 4.

32) "Moving Days," *For Christ in Korea*, October 1959, p. 1.

33) "The New Location," *For Christ in Korea*, May 1960, p. 3.

34) "Report of Progress," *op. cit.*

35) "No Mama, No Papa?" and "Middle Schools," *For Christ in Korea*, June 1956, pp. 1-2, 4; Ada Taylor, "Changes at Bupyung" and "Suffer the Little Children to Come unto Me," and "Middle Schools-A Real Need," *For Christ in Korea*, June 1957, pp. 3-5; "These Little Ones" and "Your Middle School Needs You," *For Christ in Korea*, May 1959, pp. 3-4.

36) "First Word from the Lashes," *For Christ in Korea*, September 1957, pp. 1-2.

를 마친 후 1962년 5월 25일 부인과 두 딸과 함께 한국 땅을 다시 밟았다.<sup>37)</sup> 이뿐 아니라, 테일러는 장래가 촉망한 내국인 젊은이들을 지도자들로 키우기 위해서 미국에 유학을 주선하였는데, 그들이 바로 최순국 목사, 최윤권 목사, 김진문 목사, 안재관 목사 등이다.

---

37) "A Place for the Pattens," *For Christ in Korea*, March 1962, p. 3; 김찬영,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역사> pp. 151-53.